

'90년대 OPEC의 석유전략

1. 세계석유수급과 OPEC의 역할증대

세계석유수급은 지난 '86년의 석유가격 폭락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석유가격 하락과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석유수요는 매년 약 100만B/D씩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신장율이 연평균 5%

를 초과하였다.

한편 非OPEC 지역의 원유생산량은 북해 유전사고의 영향과 미국, 舊소련의 감산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결과 세계석유 수요 증가분은 OPEC의 공급증가분으로 충당되었고 세계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다시 OPEC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 1〉

OPEC 주요국의 생산능력 확대

	현	향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당국에 따르면 현재 900만B/D의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고 당초 예정대로 '95년까지 1천만B/D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ramco는 경질유 유전개발에 투자를 집중하여 重質유전의 개발보다도 輕中質 유전을 증강하여 석유수요의 경질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EC와의 협의 등 나제르 석유상이 탄소세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향후 상황에 따라 확장계획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란	이란의 아가자데 외상은 생산능력 확대가 예정대로 '93년 3월까지 완료되어 현재 370만B/D에서 500만B/D로 증대된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 이란에서는 40개 이상의 Rig가 가동중이며 육상유전 440만B/D, 해상유전 60만B/D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급한 목표달성은 물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96년까지 400만B/D 전후가 예상된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원유생산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으며 '92년 2/4분기에 평균 100만 B/D에 도달할 것이다. 향후에도 급속히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연말 150만B/D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96년까지 250만B/D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베네수엘라	금년에 국영석유회사 PDVSA사는 '96년까지 360만B/D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90년대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 계획은 重質원유의 적당한 판매선을 확보하면서 重油 경질화 설비의 건설과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과제는 현지점의 생산능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있다.	
리비아	바드리 석유상에 따르면 현재 170만B/D의 생산능력을 유지, '94년까지 200만B/D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유전의 개발로 8.5만B/D, 기존유전의 증산으로서 水攻法과 Agip의 二期間 개발로 10수만B/D의 증산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 계획은 당초 '92년 말까지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UN의 제재조치와 OPEC 생산쿼터에 따라 계획이 지연되었었다.	

자료 : PIW, MEES 기타 자료에 의한 일본에너지연구소 작성

지난 70년대 두차례 석유위기로 세계석유수요는 감소하였고 또 非OPEC의 공급이 대폭 증가한 결과 OPEC 원유생산량이 '85년에 약 1,540만B/D까지 떨어졌지만 OPEC은 '91년까지 6년간에 원유생산량을 약 800만B/D 증산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세계 석유수급 전망은 수요면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수요의 억제효과가 나타나 OECD 국가들의 증가율은 대폭 둔화되고, 또 舊소련, 동구의 수요감소가 계속되면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증가율이 예상되어 '91~2000년에 연평균 1.5% 전후(약100만B/D)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공급면에서는 북해유전이나 개도국의 증산이 가능하지만 美國과 舊소련의 대폭적인 감산이 계속되어 非OPEC 전체의 산유량은 현재의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결과 연평균 OPEC 원유생산량은 '91년 2,340만B/D에서 '95년에는 2,860만B/D 전후, 2000년에는 3,320만B/D

전후의 확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2. 90년대 OPEC 생산능력 전망

90년대 석유공급을 전망하면 향후 非OPEC 지역의 석유개발은 탐사, 개발비용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석유수요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계는 더욱더 OPEC의 생산능력 확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장량으로 보아도 OPEC 세어는 세계 원유확인 매장량의 80% 가까이 되고, 생산비도 비OPEC 지역보다 훨씬 낮다. 그중에도 세계 확인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프연안 5개국은 OPEC 중에서도 유달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OPEC 각국이 발표한 90년대 후반의 생산능력 확대계획으로 생산능력은 3,800만B/D 이상에 달해 예전의 최고 수준에 육박할 것이다(표 1, 2참조).

80년대에 들어와 석유수요의 감소와 석유가격 하

〈표 - 2〉

확대되는 OPEC 원유생산능력 전망

(단위: 천B/D)

國 名	1978	1985	1990	1991	1996		
					G. Benson	Morgan Stanley	各國政府 發表기준
사우디아라비아	11,000	6,700	7,800	8,500	10,250	10,200	10,250
이 란	6,800	3,000	3,200	3,300	3,700	4,200	5,000
				3,300*			
이 라 크	4,000	1,900	3,200	400	2,600	3,000	6,000
				2,500*			
쿠 웨 이 트	3,300	2,300	2,400	550	2,500	2,000	2,500
U A E	2,500	2,200	2,300	2,450	2,650	2,900	3,000
카 타 르	600	450	400	380	400	400	400
				20,430*			
灣 岸 計	28,200	16,550	19,300	15,580	22,100	22,700	27,150
베 네 수 엘 라	2,400	2,200	2,300	2,350	2,700	2,800	3,600
나 이 지 리 아	2,500	1,800	1,850	1,900	2,450	2,200	2,500
인 도 네 시 아	1,750	1,300	1,450	1,550	1,400	1,400	1,500
리 비 아	2,500	1,300	1,500	1,500	1,650	1,600	2,000
알 제 리	1,200	800	800	800	800	700	1,200
가 봉	250	270	270	290	350	400	350
에 콰 도 르	230	300	300	300	330	300	350
非 灣 岸 計	10,830	7,970	8,470	8,690	9,680	9,400	11,500
합 計	39,030	24,520	27,770	29,120*	31,780	32,100	38,650

락으로 석유수입이 격감한 OPEC 국가들은 쿠웨이트와 UAE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번 걸프전에서 많은 전비를 쓴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OPEC 국가중 석유개발 부분의 추가투자에 필요한 자기자금 조달이 곤란한 국가도 있으며 최근 산유국·소비국 대화에서 보듯이 산유국들은 소비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과 자금의 조달분제를 적극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튀니지나 쿠웨이트는 계속되고, 이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은 서방측을 긴장시키고, 베네수엘라의 쿠데타 소동이나 리비아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등은 OPEC 국가들의 국내정치 정

세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외자도입에 의한 생산능력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탄소세의 창설에 맹렬히 반대하는 산유국들은 장래의 생산능력확대에 관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인을 감안하면 현재 OPEC이 발표하고 있는 대폭적인 생산능력 확대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90년대 석유수급은 착실한 수요증가에 대해 非OPEC 국가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OPEC, 특히 걸프연안 산유국의 석유공급이 더욱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OPEC의 생산능력 확대 투자가 순조로이 진

〈표 - 3〉 각 기관에 의한 세계 석유수급과 가격 전망 (단위 : 백만B/D, \$/B)

	年	1991	1992	1995	2000	年平均증가율 (%)	
						91~95	25~2000
Solomon Brothers	수요 (자유세계)	53.3	54.9	59.8	-	2.9	-
	供給 非OPEC (자유세계)	28.6	28.5	30.1	-	1.3	-
	OPEC 원유	22.5	23.5	27.5	-	5.1	-
	供給 NGL	1.9	1.9	2.2	-	3.7	-
	가격 (WTI)	20.0	20.0	24.0	-	-	-
Morgan Stanley	수요	66.4	66.9	71.0	-	1.7	-
	供給 非OPEC	41.5	40.7	40.5	-	-0.6	-
	OPEC 원유	23.3	24.3	28.3	-	5.0	-
	供給 NGL	2.0	2.0	2.3	-	3.6	-
	가격 (WTI)	21.49	20.0	21.0	-	-	-
G. Benson	수요	66.5	66.9	70.2	-	1.4	-
	供給 非OPEC	41.4	40.6	39.9	-	-0.9	-
	OPEC 원유	23.4	24.3	28.3	-	4.9	-
	供給 NGL	2.0	2.0	2.1	-	1.2	-
	가격 (브렌트)	20.0	20.0	28.0	-	-	-
코노코社	수요	68.0	-	-	80.0	90년대증가율 1.6%	
	供給 非OPEC	37-38	-	-	37-38	非OPEC 供給: 90년대	
	OPEC 원유	23.3	-	-	33.0	거의 일정, OPEC:	
	供給 NGL	-	-	-	-	年率 3.9% 증가	
	원유 가격 (92년실질가격)	20.0	-	-	(90년대後半) 24달러前後	-	-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	수요	66.4	67.0	70.3	75.6	1.4	1.5
	供給 非OPEC	41.5	40.7	39.8	41.5	-1.0	0.8
	OPEC 원유	23.4	24.4	28.6	32.2	5.1	2.4
	供給 NGL	2.0	2.0	2.0	2.0	-	-
	가격 (두바이)	16.6	18.0	23.0	30.0	-	-

행되지 않으면 '90년대 후반에 석유수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안정화를 지향하는 OPEC 정책

OPEC 국가들은「국가의 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석유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각국의 과제는 어떻게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가, 이와함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가 하는 2가지 점에 집약된다.

경제적으로는 OPEC 국가들의 다수가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아, 어떻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에 부심하고 있다.

90년대 석유수요의 전망에서 보면 OPEC으로서는 생산능력 증가에 일치하는 수요의 증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OPEC 국가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다.

그렇지만 재정이 악화되고, 채무가 과적되고, 막대한 군사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서는 보다 비싼 석유가격을 희망하고 있다.

안정된 석유가격 희망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석

유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주된 수단으로서는 ① 시장기능의 중시정책 ② 소비국 하류부문에 참가를 도모 ③ 자국의 석유산업에 유연한 외자도입 정책 등이고, OPEC 각국은 각기 입장에서 각기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장이 석유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OPEC은 생산조정을 하여 수급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석유시장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OPEC도 시장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수요의 안정적인 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더욱 안정된 석유판매선을 확보하고 하류부문에 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 OPEC 국가들이 소비국의 하류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또 메이저들의 외국자본이 자국의 석유산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시장을 통하여 관계가 깊어지는 산유국과 소비국의 관계는 더욱 투자 및 상대국과의 사업실시라는 상호 투자참여로서 더욱 깊어져 상대국의 경제, 사회, 정치동향에 주목하고, 그 안정화를 요망하고 있다. 이 관계는 90년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

〈월간석유, '92. 9〉

■ 시사영어 ■

변형 근로시간제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개월등 일정기간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또는 1주일등 특정기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및 야간근로·휴일근로등 초과근무에 따른 50%의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 일정기간의 전체적인 근로시간만 규제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방식으로 불린다. 기업주에게는 주문량이 폭주

해 납기를 제대로 맞추기 어려울때나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등에서 가산금등 추가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탄력적으로 시킬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각기업의 실정에 따라 노사가 협정해 주 44시간 범위내에서 주중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격주토요휴무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깨끗한 환경은 소중한 유산입니다